



군산시, 시민 생명·재산 보호시민에 시상상 표창

군산시는 24일 시청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쓴 시민 2명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모범 시민은 더샵디오션시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손준호 기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유상 주무관 두 명이다.

손준호 기사는 5월 초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에 진화하여 대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교유상 주무관의 경우 6월 산북동 일원 도심을 만취 역주행하는 음주운전자들 추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 데 앞장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호원대 우수부, 아시아 대학우수선수권대회 금메달

호원대학교 우수부가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AUSF)에서 주최하는 '2024 아시아 대학우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우수부는 지난 17~22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대회에서 김진현(스포츠초무도학과 2년) 학생이 곤술 경기에서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현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도 곤술 1위에 오르는 등 저력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이세빈(스포츠초무도학과 1년), 김동민(스포츠초무도학과 1년) 선수도 출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씨름부, 전국대회 동메달 획득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제1회 괴산유기농장사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씨름부는 지난 22~23일 2일간 충북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 경장급(-75kg) 강예훈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형준 감독(스포츠초무도학과 교수)은 "강예훈 선수는 이전 대회에서도 이 체급 우승을 차지하는 등 잠재가 촉망되는 선수"라며 "대회마다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주천면, 하지감자 수확·지역사회 전달

남원시 주천면(면장 김재하)은 지난 21일, 농촌지도자회 20여명과 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난 3월에 심은 친환경 감자를 수확하고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수확한 감자는 총 10kg 100여 박스로 면에 소재한 경로당 23개소와 농사를 짓지 않는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하였으며, 정성들여 가꾼 텃밭에 주민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여 수확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면에서 직접 가꾼 감자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영양 간식 제공과 함께 방문 전달하며 정서적 지지도 함께 이루어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6·25 지원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전북대 총동창회, 튀르키예 등 참전국서 온 유학생 20명에 100만원씩 전달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한국전쟁 참전국 및 지원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6.25 참전국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진정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참전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대 총동창회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진수당 바오루홀에서 최병선 총동창회장과 양오봉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국인 튀르키예 등에서 유학 온 20명의 유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기꺼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여러 국가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



어질 수 있었다"며 "당시에 받았던 큰 도움을 후손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축사를 통해 "호국 보훈을 달을

맞으면 타국에서 평화를 위해 애쓴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6.25 참전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튀르키예 유학생인 알프부세 학생은 "코렐리는 한국인이라는 뜻이지만 튀르키예 사람답게 코렐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임을 의미할 만큼 남다른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특별한 행사에서 특별 장학금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 오동초, 전북 119소방동요경연 '은상' 수상

남원소방서(서장 양순주)는 지난 21일 진행된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오동초등학교가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소방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도내 15개 소방서 대표팀이 각각 초등부와 유치부로 나뉘어 치열한 경연을 펼쳤으며, 오동초 학생들은 소방 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덕자 교장은 "이번 은상 수상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협력과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순주 소방서장은 "그동안 소방동요 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가팀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반디유치원, 전북 119소방동요대회 '은상'

무주소방서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영장에서 열린 제22회 전북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유치부 대표로 출전한 무주반디유치원은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안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동요를 노래하며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북 15개 시·군에서 유치부 8개 팀과 초등부 7개 팀 총 15개 팀이 참가하여 소방동요를 부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남원시는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이 제94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22일 고향인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광연 위원장은 이번 춘향제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더욱 성 장해 나갈 춘향제와 남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제92회 춘향제부터 춘향제전위원장을 맡아온 이광연 위원장은 남원시 이광연 출신으로 서 울시 강서구에서 이광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4회 춘향제를 기점으로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 만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행사 개최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지난 21~23일 제21회 고창 복분지와 수박축제 행사 기간동안 축제 행사장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홍보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축제 기간중 NH농협 고창군지부와 농정지원단 임직원과, NH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들린이 참여한 가운데 3일간 진행된 홍보 캠페인 행사에는 고창군 심택섭 군수와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 지역 농·축협 조합장, 전북농협 김영일 총괄본부장, NH농협은행 이정환 본부장, NH농협 전북노조 박병철 위원장이 릴레이로 함께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정자연 고창군 방문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고창군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했다.



전북은행, 6·25·월남 참전용사 찾아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 동부보훈지청을 통해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두 가정을 추천받아 생활 필수품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안전관리부 직원 일동이 사전 방문을 통해 필요한 품목을 조사한 후 고창 난 냉장고와 밥솥 교체 및 청소기 사용법 설명, 라면, 휴지, 여름이불 지원 등 생활용품들을 전달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참전 당시를 떠올리며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불편한 살림살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전북은행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NH농협 고창군지부는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보급을 위해 지난 2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음-고창 지역의 농협 임직원 400여명이 참여해 4,000만원의 시·군간 교차기부금을 추진한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가루쌀 연시회 현장 방문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 21일 순창군 구림면 가루쌀 생산단지를 찾아 직파 파종 연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시회 현장에는 순창군의회 신정기 의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이병희순창군지부장, 두레영농조합법인 대표 양민규, 순창군 가루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파재배를 통해 생산비용절감 등 가루쌀 재배 기술과 모내기 이후 핵심 재배관리 기술 등을 선보였다.

또한 가루쌀은 6월 중순 파종을 시작해 10월 중순부터 수확을 하여 일반벼에 비하여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지부장은 "이번 연시회는 전략작물인 가루쌀 재배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재배기술을 알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대강면, 독거 어르신 가구 대청소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중표)은 지난 21일, 면 행복협의회(위원장 권기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표) 위원들이 독거 어르신의 집을 대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 가구는 1일 1가구 소통 행정 추진 중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된 가구로, 연세가 아흔이 넘고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관계로 집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강면은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1차 실행단계로 행복협의회와 보장협의체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주천면, 고향 선·후배 위해 도서 200권 기증

진안군 주천면은 재경 주천장학회 허중식 이사장과 재경 진안군민회 서경석 회장 회장이 200권(3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주천 재경장학회는 지난 해 600만원을 주천 작은도서관에 기탁한 바 있으며, 올 해는 허중식 이사장 개인적으로 고향 선·후배를 위해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된 것.

또한 뜻을 같이한 서경석씨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진안군 성수면이 고향이나, 이번 허중식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주천면에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다.

허중식 이사장은 "우리고향에 작은도서관이 생겨 너무 좋고,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